

2026. 9. 14

금융 Weekly Insight

시장금리 상승 속 금융주 견조한 흐름 확인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9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금융업종 주간 수익률은 은행(+2.8%), 보험(+1.4%), 증권(+0.4%) 등 전반 상승하였으나, KOSPI 3.3% 상승 대비 언더퍼폼. 지난주에도 국내외 증시를 견인한 주요 동인은 금리.
-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시중금리 상승을 야기. 이에 금리 수혜가 큰 은행과 보험 중심 상대적 주가 강세, 특히 미국 금융주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시현.
- 국내 금융주들의 Valuation 매력도가 제고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한국 경제의 뛰어난 명목 GDP 성장률에 기반한 금융사의 펀더멘털 개선 기대가 국내 금융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금리 환경 및 Valuation 매력적: 은행 업종은 w-w 2.8% 상승하며 KOSPI(w-w +3.3%)대비 언더퍼폼. 특히, 여전히 은행주 평균 PBR은 26E 기준 0.88배로 1배를 하회하는 가운데, 27년 말 기준 PBR은 0.83배까지 떨어지며 충분히 매력적이라 판단. 펀더멘털 관련해서도 은행들의 대출 성장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은행 NIM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특히, 은행계 증권사 이익이 상반기대비 감소하더라도 은행의 이자이익 성장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경우, 은행의 구조적 ROE 개선에 대한 가시성은 오히려 더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 필요.
- 증권 - 모멘텀 부재가 큰 상황: 증권 업종은 w-w 0.4% 상승하며, KOSPI 지수 대비 언더퍼폼. 지난 주 증시거래대금(KRX+NXT)은 40조원 수준으로, 8월 평균(50조원) 대비 감소하며 증시 활동성의 둔화가 지속 관찰되고 있는 상황. 물론 주가는 5월 고점 대비 30~50% 이상 하락한 상황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존재하나, 결국 하반기 정책 기대감, 개인투자심리 반등 등 극적인 모멘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3분기 회사별 운용 수익 방어 여부를 확인한 뒤, 연간 이익에서 파생되는 배당 규모의 가시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현재 극단적으로 저평가 된 밸류에이션 또한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험 - 대장주 위주로 상승: 보험 업종은 w-w 1.4% 상승, KOSPI 지수 대비 소폭 언더퍼폼. 지난 주 보험업종 주가 변화 특징은 삼성생명(+3.4%), 삼성화재(+3.5%) 등으로 업종 대장주가 DB손보(-2.0%), 현대해상(+0.4%) 등을 아웃퍼폼. 이는 1) 반도체 주식 주가 일부 회복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 재차 부각 및, 2) 한동안 2위권사 중심으로 상승했던 주가 흐름 환경에 따른 일부 키 맞추기 영향인 것으로 판단. 보험업종의 경우,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 펀더멘털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 보험손익의 추가 개선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의 핵심 관건이 될 것. 투자자들은 실손 도수치료 영향 및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룰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실제 손익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첫번째 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9/6) 하나증권 신종자본증권 3억달러 발행 추진 - 하나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에서 3억달러 (약 411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 올해 5월 3억 달러 규모 선순위 채권 발행에 이어 4개월만에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추가 조달을 시도하는 것. 9월 말 수요 예측에 나설 것으로 관측. - 하나증권이 신종자본증권 조달에 성공할 경우, 동사 자본은 7조원대까지 늘어나며 키움증권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IMA 라이선스 조건인 자기자본 8조원과의 격차를 더욱 좁힐 것. - 이와 같은 행보는 생산적 금융기조에 맞춰 규모를 키우기 위한 행보로 해석. 특히, 발행어음 인가를 계기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반전의 계기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 하에서 증권사 강화 노력으로 판단: 생산적 금융 강화가 금융권 전반의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은 증권의 자본력을 강화함으로써 IB 부문에서의 역량을 높이고, 이를 다시 은행을 비롯한 계열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판단. 특히, 해외에서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혹은 프로젝트에 있어 딜을 구조화하는 IB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와 같은 추세가 예상되는 점에서 봐도 이러한 자본력 강화는 합리적 선택. IMA 기대는 시기상조 - 현재 보유한 발행어음 한도도 충분: 다만, 동사의 IMA 라이선스 취득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자기자본 요건 8조원 초과를 2년간 유지해야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가운데, 동사의 발행어음 사업도 여전히 한도가 충분하기 때문. 다만, 동사의 경상적 당기순이익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인위적인 자본력 강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 자본력 강화만큼 어떻게 키울 것이냐도 중요: 하나증권의 자본력이 이미 상당 부분 충당된 가운데, 향후 관건은 어떻게 증권사를 강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판단. 하나증권은 높은 자본력과 달리 MTS MAU 등 리테일 브로커리지 역량이 대형사 대비 낮고, 동사의 자기자본 투자 비즈니스였던 PF 및 해외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은 물론, 해당 시장의 규모 또한 예전에 비해 축소. 즉,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수익성 및 이익을 키울지가 향후 관건.
	(9/7) 신한투자증권, 은행, 증권 WM 역량을 모은 PWM 점포 개소 -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PWM 센트럴용산센터를 통합 오픈. 기존 은행, 증권 협업형 자산관리 브랜드인 PWM에 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 영업점을 더한 형태의 복합 채널. 고객은 별도로 점포를 옮길 필요 없이 신한은행의 금융서비스부터 증권의 자본시장 중심 자산관리 등을 한 곳에서 이용 가능.	은행과 증권 연계 통한 WM 강화 노력 지속: 신한은 PWM점포는 현재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KB와 신한 등도 은행과 증권 연계를 통한 WM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의 점포에서 증권과 은행 WM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중. 이는 고객자산가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함으로써 이들의 자산을 유치, Lock-in하겠다는 취지. 은행 고객 기반 활용이 핵심 역량: 은행은 WM부문에 있어 전업계 증권사에 비해 고객 기반은 물론, 여수신이라는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 하지만, 이러한 고객 기반과 은행 고유 역량이 은행계 증권사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즉, 은행들은 이러한 Gap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오프라인 점포의 차별화된 통합 서비스 제공을 넓혀왔음. 관건은 운용의 미: 다만, 관건은 운용의 미라고 판단. 여전히 언론에 보도되는 은행의 과거 ELS 불완전 판매는 물론 올해 상반기 ETF 판매 수수료 등의 이슈에 비춰볼 때, 은행은 물론 국내 금융사 전반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산관리 영업보다는 상품 판매에 가까움을 시사하기 때문.
	(9/8) NH농협은행, ELS 투자자 대상 2심 승소 - 은행 ELS 과징금 추가 인하 기대 - 9월 7일, 법원은 홍콩 ELS 투자자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 해당 투자자는 설명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은행의 책임비율 70%를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투자자가 20년 이상 금융기관에 근무하였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있으며, 유사한 ELS 반복투자해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은행 승소 판결이 나오며 따라 현재 검토 중인 ELS 과징금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도. 민사와 행정제재는 별개지만,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투자자의 상품 이해 정도 등 기초 사실 관계와 법 적용이 상당 부분 맞닿아 있기 때문. - 금융위는 민사 판결 외에도 자율배상과 제재간 균형을 살펴보고 있음. 은행권이 이미 1.4조원을 자율배상한 점을 과징금에 반영할지, 수천억원의 금전 제재와 기관제재를 어느 수준으로 조합할지도 주요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도. 이에 과징금이 현재 0.6조원대비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이르면 9월 ELS 과징금 최종 규모 발표 기대: 장기간 소요된 ELS 과징금 최종 규모는 여전히 미정. 다만, 일각에서는 9월 중 관련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상존. 실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과징금은 이미 초기 규모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은행들은 이미 이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한 상황. 이에 작년 하반기와 달리 ELS 결론에 따른 은행들의 실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없는 상황으로 판단. 관건은 시장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다만, 관건은 금융위의 판단이 얼마나 시장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가 될 전망.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은행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율배상 형식으로 1.4조원의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있어 절대적인 기반은 CET-1 비율로 대표되는 자본력이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9/9) 은행 신용대출 금리 6%, 주담대 7%대로 - 한국은행의 백투백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 중. 5대 시중은행 기준 신용대출 (6개월 변동 기준) 금리는 연 4.86~6.06%로 상단이 6%를 넘어섰고, 주담대 금리는 5년 고정형 기준 4.80~7.24%로 7%를 상회. - 이와 같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의 시장금리 상승 이외의 또 다른 이유는 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 은행들은 이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7.1조원 중 6.9조원을 8월까지 소진 완료. 이에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공급을 줄이는 것.	금리 상승과 은행의 금리 협상력 제고는 NIM에 긍정적 요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더불어 은행들의 대출 공급 제한은 역설적으로 은행이 선별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 공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요인으로 귀결.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NIM에 긍정적 요인. 은행 NIM -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3Q 들어 연이어 이뤄진 가운데, 은행 NIM 개선 효과는 3Q보다는 4Q부터 점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이미 예금금리 등의 시중금리는 선행해서 올랐고, 이에 따른 코픽스 금리 반영 시기 및 대출금리의 Re-pricing 주기를 감안하면, 은행 NIM은 시차를 두고 개선되기 때문. 은행 실적 개선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기대: 이는 올해보다 내년 은행들의 이자이익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의 실적 개선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필요.
	(9/9) 국회 예산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시 카드 수수료 5조원 이상 절감 가능 - 국회예산정책처는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카드 결제 대체 시 가맹점의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최대 5.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해당 보고서는 25년 국내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 1,225조원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는 1.1~1.5%로, 코인 수수료는 0.1~0.5%로 적용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으로 기존 카드 결제의 30%까지 대체할 경우, 최대 5.15조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비용도 일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카드 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관건은 소비자 혜택: 카드 결제를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대체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봐도 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절감되는 것이 명확.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것이냐는 것.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 효용이 일차적 요인.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재원은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님. 즉,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실제로 과거에는 카드사들의 서비스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규모를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으로 제한하기까지 한 상황.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수수료가 카드사의 1/10 수준이라면 고객에 대한 혜택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해당 보고서가 가정하고 있는 "할인과 각종 프로모션 혜택"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누가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결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이상의 혜택을 누군가가 제공해야 함을 의미. 결제 활성화를 통해 이득이 발생하는 결제 사업자가 이를 담당해야 할 텐데, 해당 보고서의 추산에 비춰보면, 기존 카드 결제 고객이 얻고 있던 5.15조원을 능가하는 혜택을 결제 사업자가 부담해서 제공해야 점유율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성립. 결국, 연간 조단위의 비용 부담을 지고 확보한 결제 고객이 그 이상의 수익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정착하기 쉽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의미. 과거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소득 공제 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혜택 축소와 더불어 체크카드 점유율이 하락한 사례는 참고 필요. 궁극적으로 한국 소비자의 소비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단순히 결제 수단의 선택이 아닌, 소비 구조의 전환 문제에서 접근 필요. 소비자들은 매년 고가의 내구재를 구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가 대표적. 이에 판매사는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할인과 할부가 결합된 플랜을 제시하거나, 구독형 모델을 늘리고 있는 상황. 소비자들은 해당 혜택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월별 결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카드 결제에 Lock-in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현금결제와 유사한 구조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여력은 그만큼 제한적.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9/9)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확대에 따른 모럴 해저드 우려 -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새도약기금이 지원 대상을 확대. 즉, 채무 조정 이력이 있는 연체 채권 가운데 최초 연체일이 18년 6월 19일 이전인 채권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를 개정 예정. 참고로,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를 16.4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 이와 더불어 지난 달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유 3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새롭게 가동하겠다고 발표. 이에 정부 주도 채무 조정 범위가 갈수록 확대. - 금융권은 신용 시스템 훼손을 우려. 새정부 출범 및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됨에 따라 모럴 해저드가 커질 수 있기 때문. 특히, 채무 조정 후에도 다시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경우, 차주의 상환의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 가능.	은행 단기 실적 영향은 없으나...: 이미 상각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은행들의 단기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문제는 모럴 해저드와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대출 태도 악화: 문제는 모럴 해저드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일차적. 다만, 더 큰 문제는 결국 이와 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결국 이에 따른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이 더욱 tight해질 수 있다는 점. 더 나아가,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부실채권 유동화 시 매각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야기 가능. 즉, 이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부실채권 매각 가격 하락 리스크를 다시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부실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금의 순환에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
	(9/9) 8월 금융시장 동향 - 가계대출 성장 둔화 및 기업대출 성장 확대 -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3.4조원 증가, 증가 폭이 축소 (vs 7월 5.5조원). 주담대는 4.0조원 늘었으나, 개인 주식투자 둔화 및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 강화로 기타대출이 감소. - 기업대출은 9.7조원 증가하며 속도 확대 (vs 7월 7.7조원). 대기업은 4.9조원 증가 (vs 7월 3.8조원)하며 확대되었는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상환, 대출로 조달 라인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 중소기업도 4.8조원으로 (7월 3.9조원) 전월대비 확대. - 은행 수신은 전월 30.0조원 감소에서 0.1조원 증가로 전환. 여전히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등의 이유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감소한 반면, 정기예금은 가계 자금 유입 전환과 지자체 자금 일시 예치 영향으로 20.3조원 증가.	가계대출 성장을 둔화 지속: 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불구, 은행들의 한도가 이미 대부분 소진되어 가는 만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 다만, 뇌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 즉, 가계의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은 고려 필요. 대기업대출 중심 성장 지속에 중소기업 일부 가세: 여전히 대출 성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특히, 최근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 조달 선을 회사채에서 은행 대출로 일부 차환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확대의 경우, 일부 은행들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이 맞물린 효과로 여전히 양질의 대출 수요 확대는 추가 확인 필요 판단. 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는 순항 중: 3Q에도 은행의 대출 증가 추세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즉, 올해 연간 기준 당초 목표로 했던 5% 내외 수준의 적정 성장 달성을 기대.
	(9/10) 강남도 아닌데 월세 400만원에 비명 - 서울에서 월세 400만원이 넘는 고가 임대차 계약이 증가. 특히, 강남권에 집중된 고가 월세가 한강 벨트를 넘어 구로구와 동대문구 등 외곽에도 등장.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월세 상승 압력이 가중. - 올해 1~8월 강남 3구 제외 400만원 이상 고가 월세는 35% y-y 증가. 최근에는 강북, 강동구 등에서도 400만원 이상 월세가 등장. - 이는 주택 공급 감소, 실거주 유도 정책 영향으로 인한 임대 물건 감소,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 - 한국은 기존의 전세 시스템으로 인해 매매가대비 임대 수익률이 6월 기준 1.9%로 뉴욕 4.8%, 런던 3.15, 방콕 3.7% 등에 비해 낮았음.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될수록 매매가대비 수익률 기준 월세 형성 구조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	월세 구조 확산 - 전세 수요 감소는 전세 대출 감소로 확인: 최근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감소. 전세가격이 상승 중임을 감안하면, 물론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 여력 축소는 부담 요인: 월별 주거비용 상승은 가계의 소비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 요인. 물론, 전세 계약 기간이 통상적으로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 영향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은 고려 필요. 낮은 임대수익률과 금리 상승 추세 고려 필요: 더 나아가, 해당 보도는 임대 수익률이 낮은 만큼 월세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도 고려 필요. 한국의 임대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것 또한 개인인 가운데,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에 수반된 이자비용의 증가나 혹은 집에 부채가 없을 경우, 기회비용의 상승 (예: 예금금리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임차인은 금리 상승으로 실제 주택 구매력이 낮아지는 만큼 전월세 수요의 상승을 의미. 즉, 이에 임대료는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앞서 언급한 소비에 있어 미래 전망 관련 심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9/11)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 -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대비 늦어 -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 하나은행은 기존 3.2%에서 3.3%로 0.1%p 인상하였고, 신한은행은 3.2%에서 3.4%로 0.2%p 인상. -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금 금리를 올린 은행들은 재차 최근 한 차례 더 올리며 기준금리 인상 2회 영향을 반영. - 금융소비자 일각에서는 이번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지난 7월 첫 금리 인상에 비해 느리다는 지적. 한은이 8월 27일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10일 가까이 지난 후 예금금리가 높아진 것. - 이와 같이 느린 인상은 은행들의 대출 운용처가 제한되는 만큼, 조달 부담이 큰 정기예금 조달에 대한 니즈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 더딘 예금금리 인상 - 대출과 예금 두 측면 모두 원인: 보도에서와 같이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이 다소 더디고 인상 폭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대출과 예금 모두에 있는 것으로 판단. 즉, 1)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연초 대출 성장을 집중하고, 연말로 갈수록 성장보다는 관리에 치중함에 따라 조달에 대한 니즈가 낮아지는 가운데, 2) 상반기대비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완화되었기 때문. 유동성 환경 개선 가능성에 초점: 일련의 현상은 지금의 유동성 환경이 은행의 이자이익과 관련된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 기준금리 상승과 더불어 은행의 금리 협상력 또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
	(9/11)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추천 - KB금융 회추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전격 결정. 당초 현재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번 결과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이재근 부문장은 93년 주택은행에 입행, KB 은행장, KB금융 CFO, 제주 글로벌 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KB금융 내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한 인물. - 회추위 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강조. - 향후 절차는 10월 2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을 거쳐, 11월 20일 임시 주총을 통해 최종 결정 및 선임.	승계 프로그램의 재확인: 금번 회추위의 결정은 KB금융의 최고 경영진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 동사는 과거 외풍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진화된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행해 왔음. 특히, 차기 최고 경영진 후보를 여러 명 두고 이들에게 그룹의 각 부문을 총괄하는 부문장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경험을 쌓도록 하였고, 회추위 또한 기업과 주주를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던 것. 그리고, 금번 결정은 이를 재확인한 계기로 판단. 차기 회장 후보 - 은행장과 금융지주 CFO 역임: 차기 회장 후보는 KB금융 내에서 30년 이상 여러 보직을 거쳤고, 특히 은행장과 금융지주 CFO를 역임한 점에 초점 필요. 즉, KB금융의 기업가치가 더욱 레벨업하게 되기를 기대.
증권	(9/10) 직장인, 퇴근하고 주식 사고판다...거래소 애프터마켓 D-5 - 한국거래소가 9월 15일부터 오후 6시~11시 30분 단일가 방식의 애프터마켓(시간외 거래)을 개시하며 주식 거래 시간이 사실상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확대. - 직장인 등 낮 시간 거래가 어려운 투자자층을 타깃으로 한 거래 활성화 조치로, 증권사 시스템·운영 부담은 단기 비용 요인이나 중장기 위탁매매 수수료 증가로 긍정적 효과 기대. - 선진 거래소의 시간외 거래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시장 구조 개편으로 평가.	애프터마켓 개시, 거래대금 증가·브로커리지 확대로 리테일 강점 증권사 수혜 기대: 거래 시간 확대는 낮 시간 거래가 제한됐던 개인투자자 신규 유입을 유도해 위탁매매 수수료 확대로 이어질 잠재력을 보유. 시스템 안착 이후 거래대금이 점진 증가하면 리테일 중심 증권사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 애프터마켓 유동성 집중도와 호가 스프레드 효율에 대한 초기 모니터링이 필요.
보험	(9/8) 보험사 부채 할인을 높여 생산적 금융 늘린다...자본규제 완화 - 금융당국이 IFRS17 부채 할인을 적용 기준 완화를 추진하며 보험부채 평가액 하락과 지급여력비율(K-ICS) 개선 효과가 기대. - 할인을 상향 시 배당 여력 및 신규 투자 가능 자본이 확대되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생보사를 중심으로 자본 부담이 완화될 전망. - 장기투자 및 인프라·대체자산 확대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가 기대.	부채 할인을 완화, K-ICS 개선·배당 여력 확대로 듀레이션 긴 보험사 중심으로 긍정적: 할인을 규제 완화는 보험사 K-ICS 비율을 직접 끌어올려 추가 자본 확충 없이 배당 가능 자원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긴 생보사 등 수혜가 두드러질 전망.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규제 완화 범위와 시행 시기 구체화 여부가 실질 영향도를 결정. 생보사 듀레이션 갭 관리 여유 확대로 자산배분 전략 유연성도 제고될 것으로 평가.
	(9/9) 1,200%를 우회 말라...금감원, 보험사에 경고 - 금감원이 신계약비 이익 과다 계상을 목적으로 1,200%를(해지환급금 한도 상한선)을 우회하는 관행을 인지하고 전 보험사에 경고. - 일부 생보사가 계약자 환급금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려온 관행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방침을 명확히 함. - 보험사 거래·영업 관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도가 높아지는 국면.	1,200%를 우회 차단, 단기 CSM에는 하방 요인이나, 중장기 긍정적 효과를 기대: 1,200%를 우회 차단은 일부 생보사가 단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하던 계리적 편의를 제거해 CSM·당기순이익에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가능. 다만, 중장기적으로 유지율 개선, 계약 효율성 제고, 경쟁 완화 등 효과가 기대. 보험 업권 전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9/11)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 - 금감원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의 산출·변경·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험사의 연간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금리변동위험 관리(듀레이션 갭)와 GA 판매위탁리스크를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	IFRS17 계리가정 투명성 강화, 이익 관리 여지 축소·밸류에이션 신뢰도 제고: 계리가정 자의적 변경을 통한 CSM·이익 부풀리기 관행이 제도적으로 억제되며 실적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이 제고돼 밸류에이션 신뢰도 측면에서 중장기 긍정. 보수적 가정 강제 적용 시 단기적으로 CSM·순이익에 하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생보사 금리민감도 평가 강화와 GA 채널 의존 높은 손보·중소형사의 내부통제 부담 확대가 추가 비용 요인으로 판단.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9-14 (월)	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설	일본 7월 산업생산 (수정치)
2026-09-15 (화)	7월 통화 및 유동성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잠정)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9월 ZEW 경기기대지수 영국 7월 실업률 일본 7월 3차산업지수 중국 8월 실업률 중국 8월 산업생산 중국 8월 고정자산투자 중국 8월 소매판매 중국 8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6-09-16 (수)		미국 FOMC 회의 발표 미국 8월 소매판매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8월 수출입물가지수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미국 7월 기업재고 미국 주간 원유재고 유로존 7월 산업생산 영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소비자물가지수(CPI)
2026-09-17 (목)		미국 8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8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영국 BOE 기준금리결정 일본 BOJ 금융정책회의 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결정
2026-09-18 (금)	8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	미국 8월 산업생산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미국 8월 경기선행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7월 경상수지 독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 (PPI) 영국 8월 소매판매 일본 8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일본 7월 핵심기계류수주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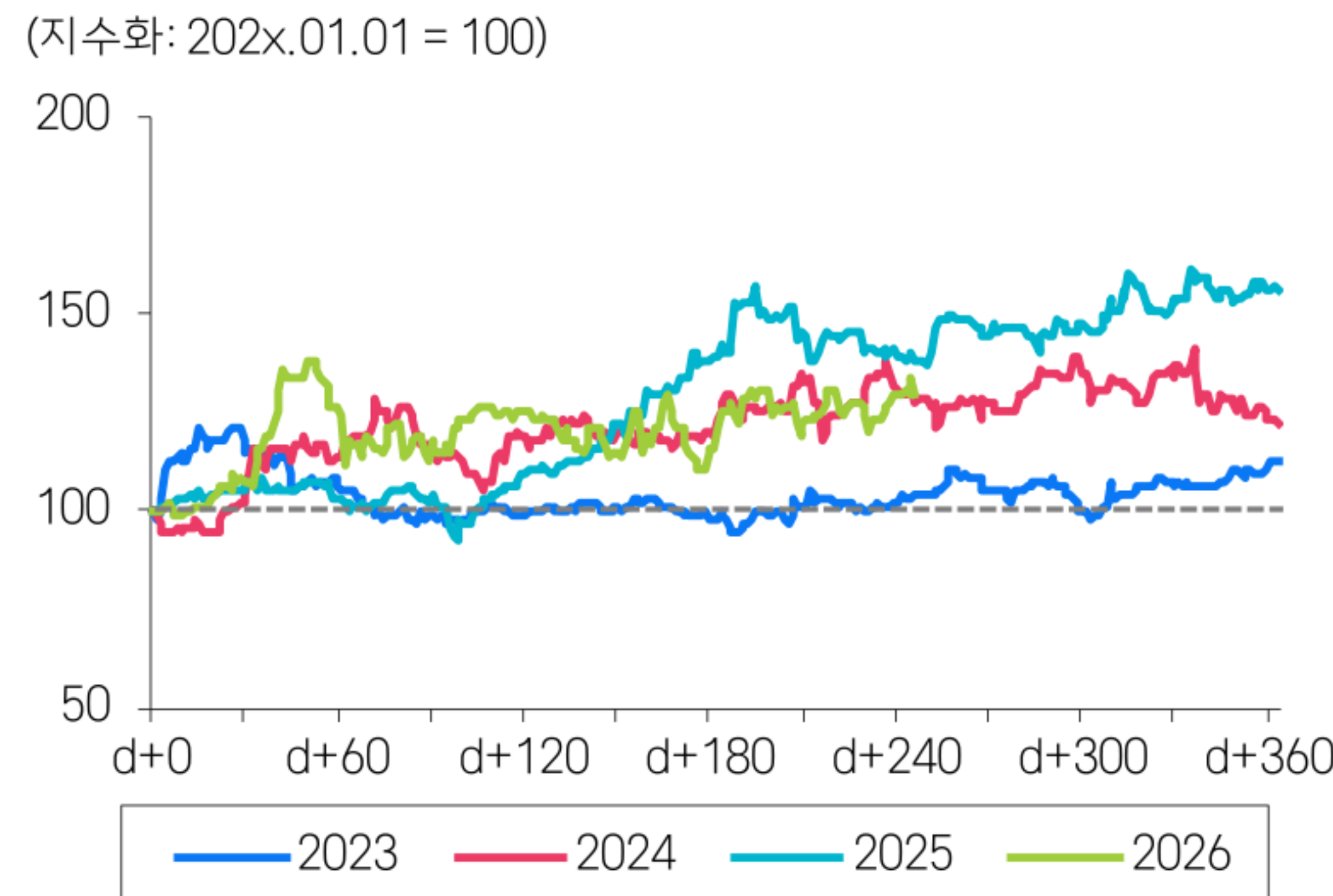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513.4	6,909.9						3.3%	5.0%	106.6%	64.0%
	KRX은행	222.6	1,734.8						2.8%	7.1%	42.0%	33.1%
	KRX증권	61.1	1,843.5						0.4%	(5.8%)	26.2%	20.5%
	KRX보험	124.8	4,510.2						1.4%	12.6%	68.4%	68.5%
	결제 지수*	1.367	n/a						(2.7%)	5.4%	7.0%	4.1%
은행	KB금융	63.1	177,900	55.4	1.1	12.1	9.1	19.9	3.4%	7.2%	51.3%	42.7%
	신한지주	53.0	112,900	52.9	1.0	10.9	9.1	22.0	2.4%	8.8%	66.5%	46.8%
	하나금융지주	37.8	137,800	50.0	0.9	10.9	8.3	15.1	2.6%	7.7%	57.1%	46.4%
	기업은행	16.6	20,850	36.0	0.5	8.7	6.3	3.7	0.7%	3.5%	5.7%	(0.5%)
	BNK금융지주	4.9	15,930	44.7	0.5	7.7	6.0	2.2	3.5%	8.5%	3.4%	0.4%
	JB금융지주	5.9	31,750	43.2	0.5	9.5	5.5	22.4	2.4%	13.6%	27.8%	23.8%
	iM금융지주	2.9	18,450	50.9	1.0	13.1	8.0	5.2	1.8%	9.8%	29.8%	18.6%
	카카오뱅크	10.2	21,350	50.0	1.4	8.9	16.5	28.6	(2.7%)	(1.8%)	(13.4%)	(1.2%)
증권	미래에셋증권	18.2	33,450	25.8	0.9	23.6	5.4	130.6	(2.9%)	(8.4%)	54.5%	43.9%
	NH투자증권	9.7	26,300	41.6	1.0	16.4	5.8	57.2	(1.3%)	(7.9%)	27.4%	24.6%
	한국금융지주	10.8	193,600	24.6	0.8	22.9	4.1	44.6	2.5%	(3.4%)	31.2%	19.7%
	키움증권	7.3	278,000	28.9	0.9	23.9	4.4	54.1	2.8%	(7.0%)	11.4%	(4.0%)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21.5	128,400	51.7	1.3	23.1	6.2	9.7	(5.2%)	7.9%	1.3%	13.5%
	삼성화재	30.6	686,000	42.0	0.7	8.1	9.4	30.8	3.5%	9.2%	45.0%	38.0%
	삼성생명	61.5	307,500	35.0	0.5	4.7	11.1	88.5	3.4%	1.7%	91.1%	95.1%
	DB손해보험	12.6	191,700	30.3	0.8	13.9	5.8	11.4	(2.0%)	20.6%	31.9%	46.2%
	한화생명	5.2	5,990	10.8	0.3	6.8	4.7	6.9	4.4%	27.4%	80.4%	84.0%
	현대해상	4.4	51,300	13.5	0.5	16.6	3.3	8.0	0.4%	23.2%	86.9%	66.6%
결제	카카오페이	6.3	46,250	n/a	n/a	6.5	56.4	145.0	(2.2%)	5.2%	(12.6%)	(5.8%)
	NHN KCP	0.6	14,490	n/a	n/a	17.3	10.4	23.9	(8.1%)	(2.4%)	4.2%	(2.8%)
	KG이니시스	0.3	10,110	n/a	n/a	6.7	5.3	9.1	(2.7%)	(1.7%)	(2.5%)	(1.1%)
	KG파이낸셜	0.2	4,195	n/a	n/a	6.4	6.8	0.9	(1.1%)	(0.6%)	(19.8%)	(10.7%)
	나이스정보통신	0.4	7,780	n/a	n/a	14.6	5.1	56.9	7.0%	38.2%	66.2%	53.5%

참고: 9/11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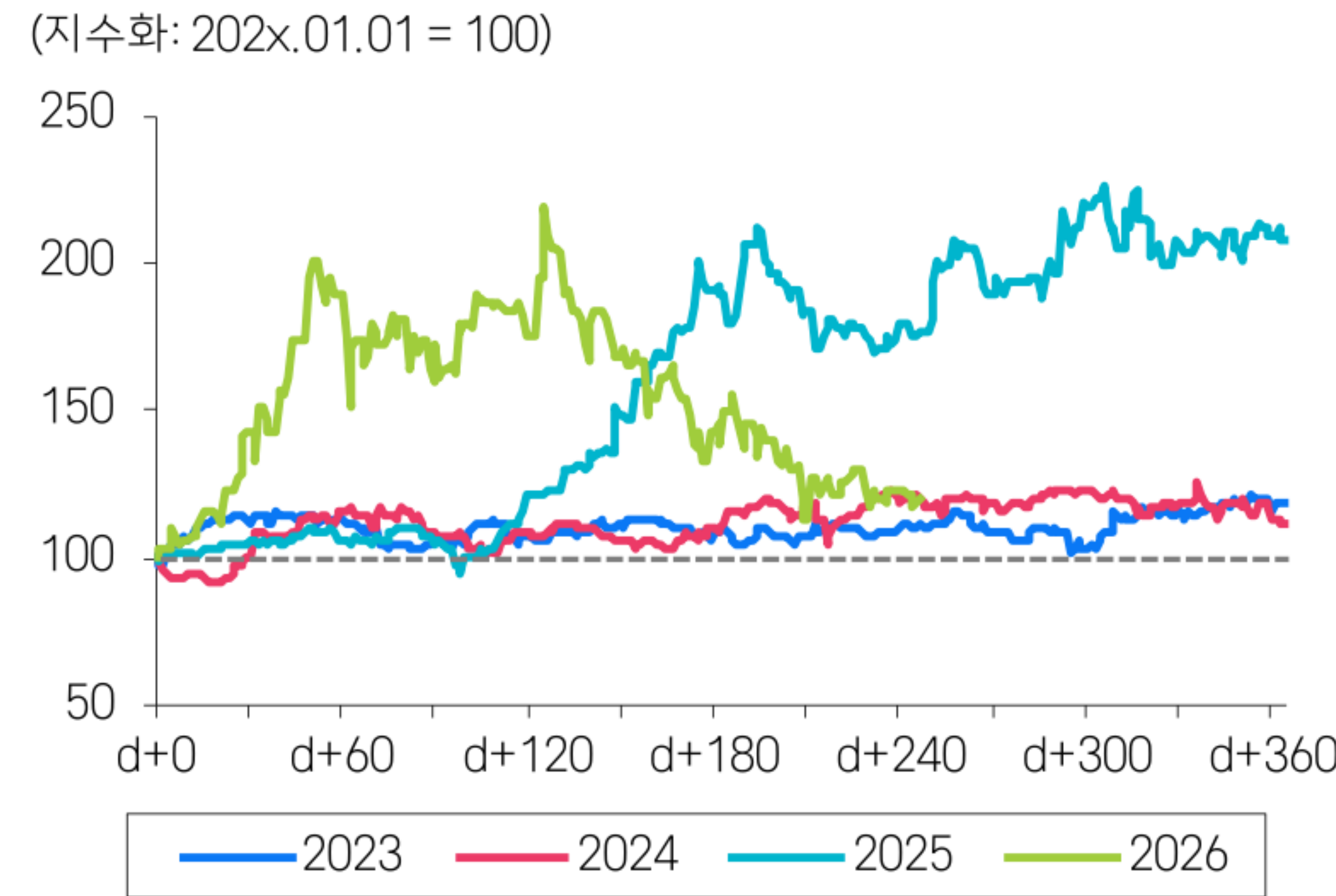
1.4 추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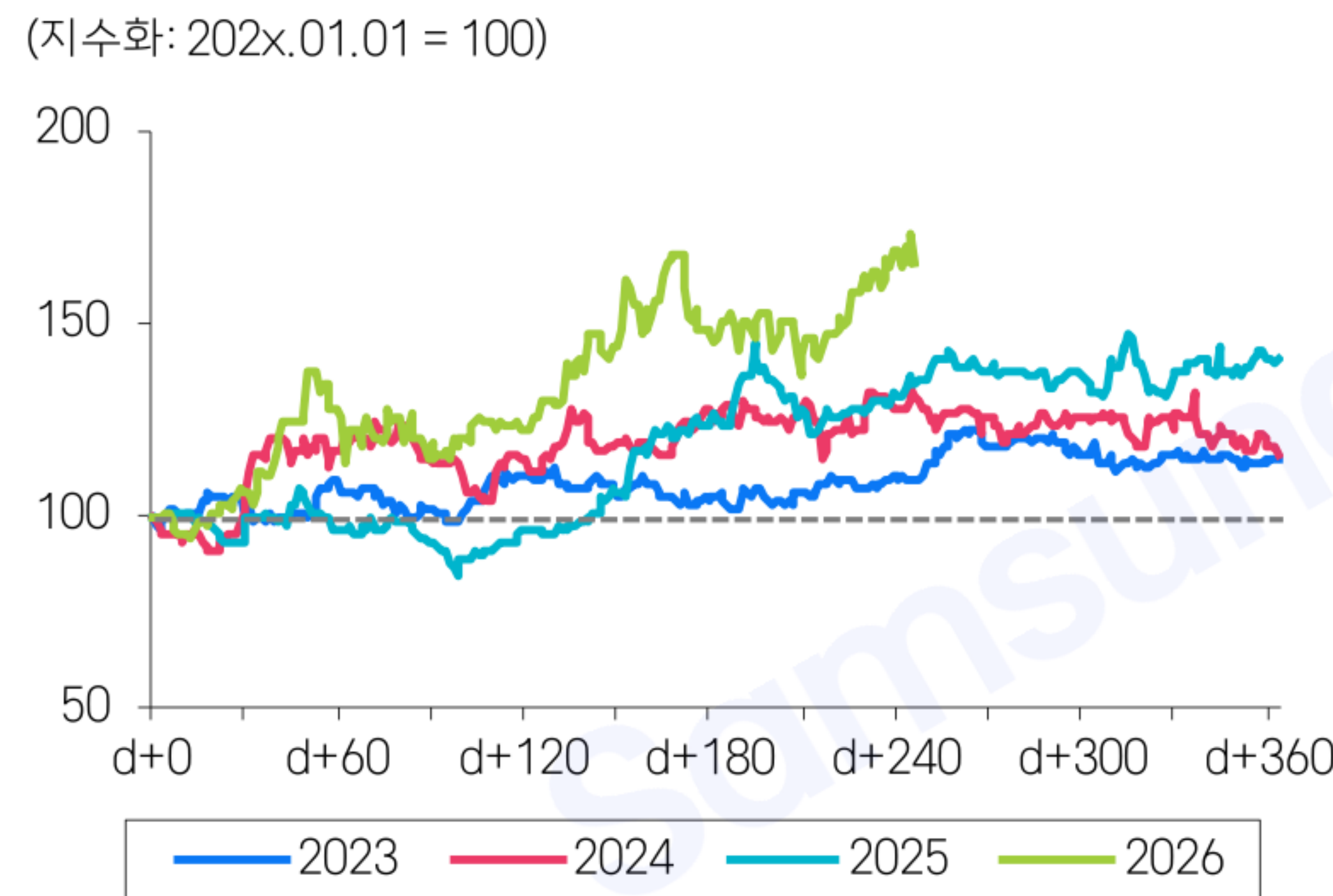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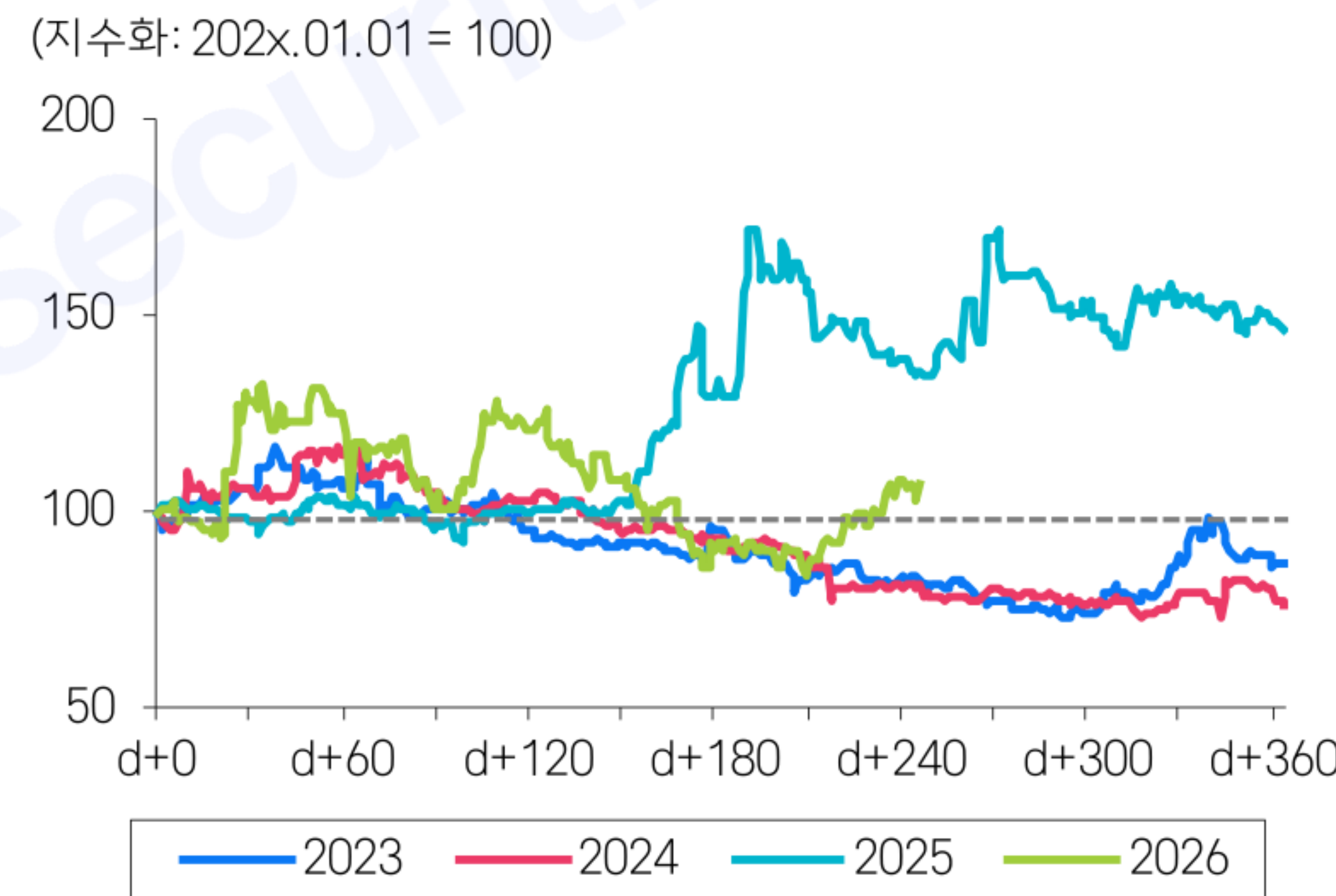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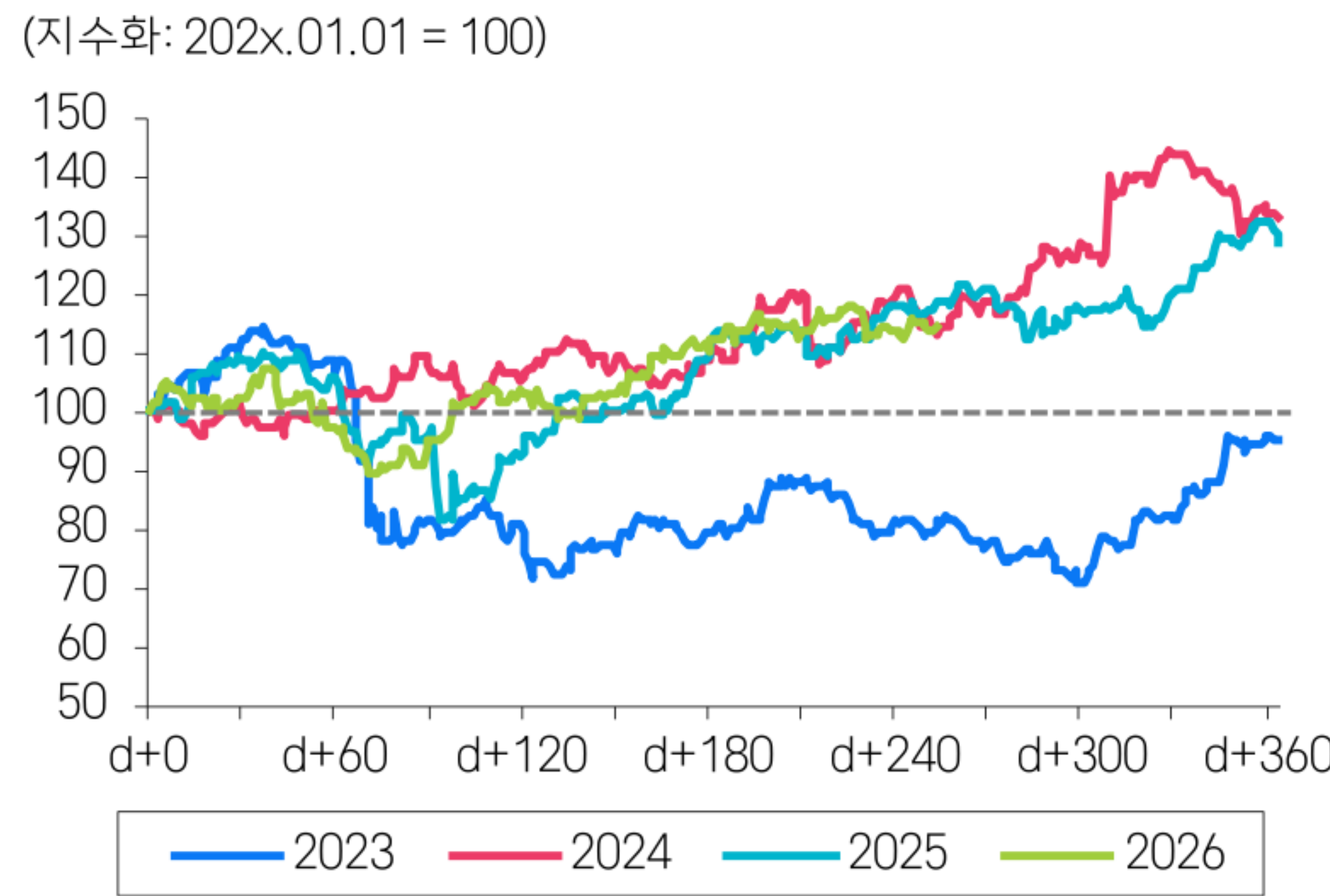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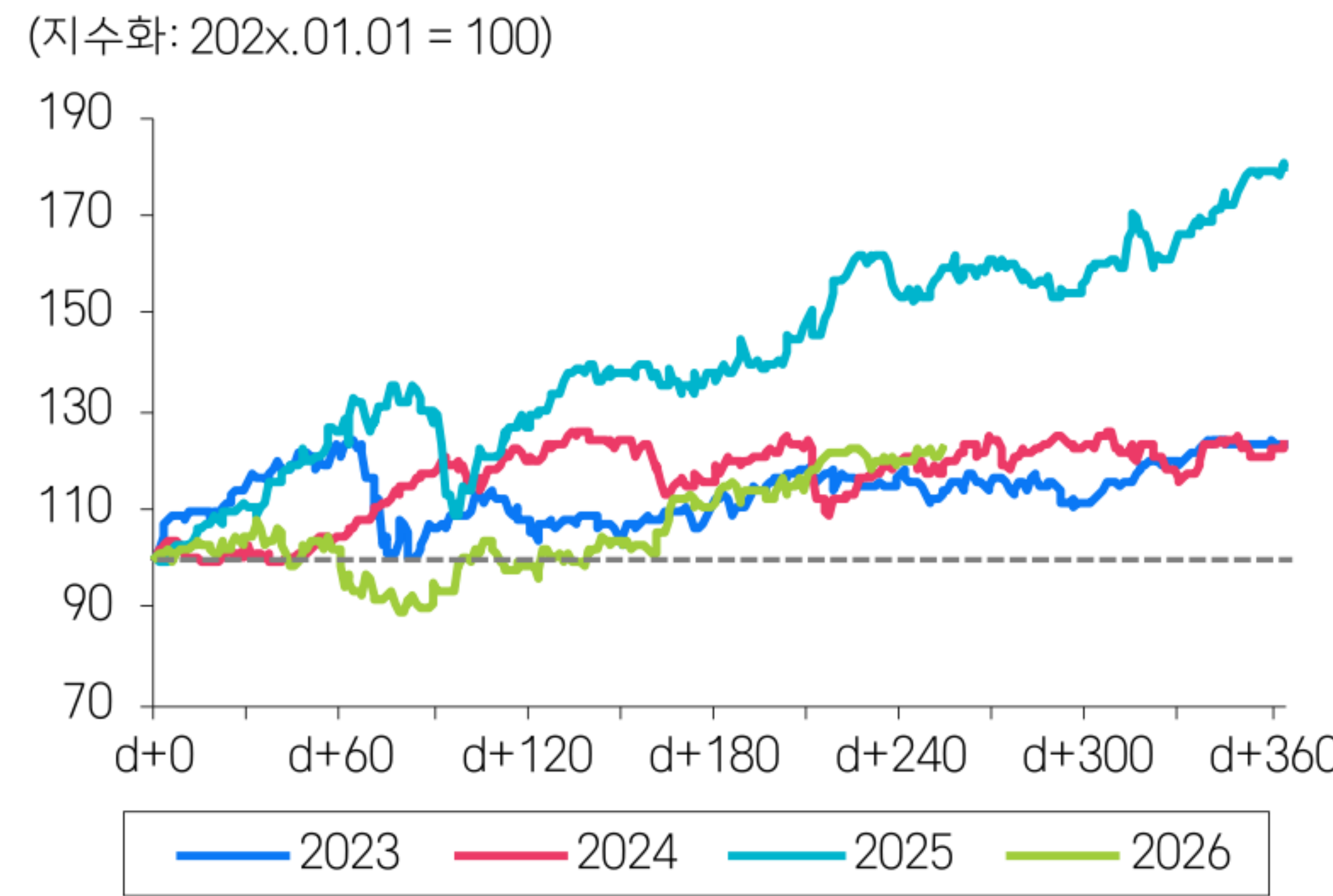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946.9	69.9	2.6	18.7	14.3	24.3	(0.7)	(1.9)	16.1	10.6
		Bank of America	438.4	97.9	1.5	12.2	13.5	21.9	0.0	(2.2)	23.9	14.0
		Citigroup	232.9	116.5	1.2	10.0	12.5	58.7	0.8	0.1	39.6	19.0
		Wells Fargo	273.0	87.4	1.6	13.3	12.3	17.2	0.4	2.5	10.8	(3.1)
		PNC Financial	97.4	72.1	1.6	13.2	12.9	14.0	(0.6)	(4.3)	20.9	17.0
	유럽	Banco Santander	224.4	64.8	1.7	13.9	11.7	14.5	0.1	(0.1)	51.8	28.0
		Unicredit	148.9	78.2	1.8	16.6	11.3	7.3	1.8	(0.1)	27.7	20.1
		BBVA	164.4	98.0	2.4	20.0	12.0	20.8	0.1	1.8	56.7	26.7
		ING Group	106.9	87.3	1.8	14.0	12.9	17.2	0.3	3.9	49.7	34.6
		Lloyds	86.9	82.2	1.5	14.2	10.2	43.0	(1.3)	(3.6)	34.6	13.1
		Barclays	89.7	71.5	1.0	10.8	9.1	20.0	(0.6)	(4.9)	29.9	3.7
	일본	Mitsubishi UFJ FG	282.9	50.2	1.7	12.4	14.5	18.4	(3.3)	(0.7)	59.9	46.9
		Sumitomo Mitsui FG	171.1	61.2	1.5	11.3	14.4	16.9	(2.4)	(0.8)	68.6	37.1
		Mizuho FG	137.7	56.6	1.7	12.9	14.5	18.6	(1.4)	0.4	78.0	51.8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410.2	30.1*	0.7	9.0	7.4	3.3	(1.1)	6.2	26.8	21.0
		China Construction Bank	333.7	30.3*	0.7	9.6	7.3	2.2	(0.1)	11.6	23.7	26.8
		Agricultural Bank of China	356.6	30.8*	0.7	9.9	7.8	4.6	(2.8)	8.8	13.9	9.9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87.8	N/A	1.4	6.5	19.4	(15.2)	0.9	0.5	3.5	1.5
		AIG	39.4	89.2	0.9	10.2	10.5	흑전	(1.2)	(0.9)	(4.6)	(11.9)
		Travelers Insurance	78.3	82.6	2.2	22.0	10.9	25.2	1.6	1.4	34.5	29.4
	유럽	Allianz	195.1	81.2	2.7	18.9	14.5	10.1	(1.8)	(0.1)	24.8	13.3
		AXA	104.7	60*	1.8	17.4	10.4	(8.4)	(3.2)	(4.1)	7.4	5.4
		Generalli	80.2	57.7*	2.0	14.3	14.3	14.3	0.5	2.3	36.5	26.1
	일본	Tokio Marine	100.4	48.9*	2.2	14.5	15.8	81.1	(0.1)	5.7	23.4	37.0
		Daiichi Life Insurance	44.4	49*	1.5	12.7	12.7	23.5	0.3	0.5	51.9	44.5
	중국	Ping An Insurance	138.4	34.1*	0.9	14.5	6.3	10.8	(5.5)	(1.1)	(5.4)	(17.1)
		China Life Insurance	146.0	16.2*	1.2	24.1	5.3	3.0	(4.2)	10.4	27.4	8.1
		PICC P&C Insurance	48.3	36.8*	1.2	14.1	8.9	6.0	(2.9)	11.3	(9.1)	4.2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1.6	97.3	2.7	19.6	14.6	37.3	(0.9)	(1.3)	31.9	17.1
		Morgan Stanley	336.7	65.8	3.1	19.2	16.5	27.3	(1.5)	(1.8)	37.1	20.8
		Charles Schwab	185.5	79.9	3.8	25.0	17.1	35.0	(1.9)	(2.6)	14.7	7.3
		Robinhood	101.4	50.6	9.6	19.0	51.9	5.7	(7.8)	13.3	(2.1)	(0.5)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19.3	84.3	6.5	35.2	18.4	14.8	(0.5)	(5.5)	(0.2)	(12.2)
결제	미국	VISA	691.7	21*	19.6	67.5	29.4	23.4	(1.2)	1.4	9.1	5.6
		MasterCard	498.7	17.7*	67.5	237.8	29.0	18.6	(1.7)	0.4	(1.9)	(0.3)
		PayPal	46.0	10.5*	2.4	23.8	10.7	(7.2)	(2.3)	(11.3)	(19.7)	(8.0)
	유럽	Adyen	34.1	0*	4.6	21.5	23.9	15.7	(9.5)	(12.5)	(31.0)	(32.5)
핀테크	미국	Block	47.6	0*	2.0	9.7	48.0	(21.4)	(4.3)	(4.7)	8.7	21.7
		Upstart	2.5	0*	2.8	17.8	37.3	52.6	(8.8)	(17.4)	(59.4)	(41.5)
		Affirm	24.1	0*	3.6	12.2	34.4	(62.5)	(1.3)	(8.8)	(14.0)	(4.0)
	중국	LuFax	1.0	N/A	0.0	(1.2)	(1.2)	흑전	(3.2)	(19.9)	(59.8)	(52.7)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9/11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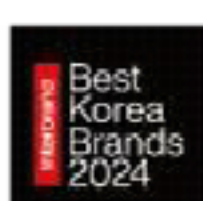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